



안근조(호서대)

1. 들어가기

시편 80편은 5권으로 구성된 전체 시편의 구성 중 73편에서 시작하여 89편으로 끝나는 제 3권에 속한다. 제럴드 윌슨(Gerald H. Wilson)에 의하면 시편의 총 5권 가운데 앞에 제 1-3권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언약이 기억되고 있지만 그 약속이 실패한 것으로 돌아갔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다. 즉, 이스라엘 왕조의 멸망으로 인해 그 언약신학은 파기된 것으로 나타나기에 시 89편은 제 3권의 맨 끝에서 “언제까지니이까?”(46[47]¹⁾),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은 “어디 있나이까?”(49[50]) 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다.²⁾ 그러나 시

1) []안의 숫자는 MT의 절수를 가리킨다.

2) Gerald H.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Chico, California: Scholars Press, 1985), 212; “The Use of the Royal Psalms at the ‘Seams’ of the Hebrew Psalter,” *JSOT* 35 (1986), 88-92.

편 80편을 펼치자마자 의외의 지파가 등장한다. 바로 요셉지파이다: “요셉을 양 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귀를 기울이소서”(1[2]).³⁾ 이윽고 다음절에서는 요셉의 아들과 요셉의 형제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이 나열된다. 반면에 80편 어디에서도 유다지파나 다윗왕조 심지어 시온에 관계되는 어떠한 단어들도 발견되지 않는다. 아더 바이저(Artur Weiser)는 일찍이 본문의 기원을 북이스라엘의 중앙성소 제의로부터 설명하면서 이후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시대의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제시한다.⁴⁾ 70인 역(LXX)의 시편 80편 표제 또한 앗시리아의 북이스라엘 침공과 관련된 것으로 읽고 있다(cf. 왕하 15:19). 그렇다면 다음의 의문이 제기된다. 시편의 제 3권에 해당하는 시들은 대부분 요셉 지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유다지파와 다윗왕조를 강조하고 있는데(ex. 78:9-11, 67-72; 87:2; 89:3-4[4-5], 19-29[20-30]) 왜 80편은 이러한 정경적 맥락에 역행하는가?

흥미로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80편을 끝까지 읽노라면 본문에 가득한 다윗왕조 중심의 메시아 기대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바로 본문 15[16]절과 17[18]절 때문이다.

וְכִנָּה אֱשֶׁר־נִטְעָה יְמִינֶךָ וְעַל־בֶּן אֹמְצָתָהּ לְךָ: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15[16]

תְּהַרְיֶךָךְ עַל־אִישׁ יְמִינֶךָ עַל־בֶּן־אֶרֶךְ אֹמְצָתָהּ לְךָ: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17[18]

남유다왕국이나 다윗왕조에 대한 명시적 단어는 없으나 “줄기”, “오른쪽에 있는 자”, “힘있게 하신 인자” 등의 단어는 구약성서의 메시아 전승인 ‘기름부

3) 본 논문의 성경구절은 ‘사역’이라고 명기되지 않는 한 한글개역개정성경을 인용함을 밝힌다.

4) Artur Weiser, *The Psalms*, tr. by Herbert Hartwe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547.

음 받은 자'에 대한 기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상기 2개의 구절은 본문비평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줄기”에 해당하는 הַגֵּזֶל (브칸나)는 구약성서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나오며 그 뜻이 명확치 않다.⁵⁾ 또한 각 절의 후반절은 בֶּן (벤/아들)과 בֶּן־אָדָם (벤 아담/인자)의 차이 외에는 히브리어 원문이 똑같아서 중복오사가 의심되고 있다. 실제로, 영문성경 RSV는 15[16]절 후반절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또한 אִישׁ יְמִינָהּ (이쉬 에미네카/주의 오른 쪽에 있는 자)에 관하여 궁켈(H. Gunkel) 이후 많은 학자들이 베냐민 족, ‘son of the right hand’를 암시한다고 보고 있다.⁶⁾ 결정적으로, “힘있게 하신 인자” 역시 다윗왕조의 특정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상관없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 최근의 학자들은 15a[16a]절을 “주의 우편에 심으신 가지”로 번역하여 17b[18b]절의 “인자”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포도나무로 보거나⁷⁾ 또는 포도나무로 상징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한다.⁸⁾

문학양식과 관련하여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의 제의와 관련된 시편인가 또는 남유다 말기의 공동탄식시인가? 아니면 포로기 또는 포로후기의 새로운 시온건설의 비전을 소망하는 기도인가? 본문의 복잡한 문학전승사적 과정을 고려할 때 시편 80편은 모든 시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통시적 의미를 띤다. 그러나 기존의 역사비평적 연구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설에 근거한 추론의 한계로 불필요한 논쟁과 해석학적 문제들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역사비평 이후 대두된 문학비평적 방법론은 본문 자체에 근거한 문학적 이해를 추구하여 가설적 논쟁과 억측보다는 다의적이

-
- 5) Marvin E. Tate, *Psalms 51-100* (Dallas: Word, 1990), 307.
 - 6) H. Gunkel, *Die Psalmen übersetzt und erklärt* (Göttingen, 1929), 353; H. Heinemann, “The Date of Psalm 80,” *JQR* 40 (1950), 297–302; Artur Weiser, *The Psalms*, 551; Aubrey R. Johnson, *The Cultic Prophet and Israel’s Psalmody*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1979), 149–150; Alexander Rofé, “The Text–Criticism of Psalm 80–Revisited,” *VT* 61 (2011), 307–308.
 - 7) Marvin E. Tate, *Psalms 51-100*, 312.
 - 8) J. Clinton McCann, Jr., *The Book of Psalms* (Nashville: Abingdon, 1996), 1000.
 - 9) Marvin E. Tate, *Psalms 51-100*, 309–313.

고 종합적인 본문이해의 길을 열어주었다. 특히,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정경적비평방법론의 시편연구 적용은¹⁰⁾ 제 2성전시대의 찬송가였던 시편이 경전공동체의 역사적 실체의 산물임을 전제하고 있기에 주장의 근거가 견고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경적비평방법론에 근거하여 시편 80편 본문의 다의적 요소들을 새롭게 해석하려 한다. 포로기 상황과 신학의 정경적 맥락을 근거로 시편 제 3권에서의 80편의 전략적 위치를 증명하여 기존의 공동체탄식시로 간주되었던 본문이 제왕시적 요소를 드러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구약성서의 메시아전승의 결정적 본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논증하려 한다.

2. 시편 80편의 다의적 요소 - 방법론적 제안

본격적인 시편 80편의 정경적비평적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는 먼저 본문이 드러내는 다의적 요소들을 본문의 현재 형태를 주목하는 문학비평적 관점에서 점검하려 한다. 이전 시편 학자들에게 주석의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들이 정작 본문의 정황과 의미를 새롭게 밝히는 해석학적 계기들을 제공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시편 80편은 전형적인 공동탄식시로 이해되고 있다.¹¹⁾ 호칭과 도입구, 불평과 탄원 그리고 구원경험의 회고와 탄식, 간구와 소원 등의 일정한 구조를 이룬다. 특히 3[4], 7[8], 19[20]절의 반복되는 후렴구를 중심으로 시

10)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Gerald H.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David M. Howard, Jr.,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7); 김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편 89편," 『구약논단』 32 (2009), 83-110; 김창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편 46편의 시온신학," 『구약논단』 32 (2009), 63-82; 문은미, "시편의 구성적 접근을 통한 시편 제 4권의 이해," *Canon & Culture* 3 (2009), 177-209;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시편: 성도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 (서울: IVP, 2015); O Palmer Robertson, *The Flow of the Psalms: Discovering their Structure and Theology* (Philadelphia: P. & R., 2015); Walter C. Kaiser, Jr.,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Psalms," *Bibliotheca Sacra* 174 (2017), 3-12.

11) Claus Westermann,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tr. by Keith R. Crim and Richard N. Soulen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53.

의 구성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¹²⁾

- 1-3[2-4] 호칭과 도입 단원
- 4-7[5-8] 불평 (“어느 때까지”)
- 8-15[9-16] 구원경험의 회고와 현재상황의 탄식
- 16-19[17-20] 간구와 소원

중심 모티프라 할 수 있는 반복되는 후렴구에는 각각 호칭(“하나님이여”)과 회복(“돌이키시고”) 그리고 구원 간구(“얼굴빛을 비추사”)의 요소를 지닌다:

אֱלֹהֵי הַשְּׁיבֵנוּ יְהוָה אֱרֵאֵר פְּנֶיךָ וְנִשְׁעָ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3[4]

אֱלֹהֵי צְבָאוֹת הַשְּׁיבֵנוּ יְהוָה אֱרֵאֵר פְּנֶיךָ וְנִשְׁעָ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8]

יְהוָה אֱלֹהֵי צְבָאוֹת הַשְּׁיבֵנוּ יְהוָה אֱרֵאֵר פְּנֶיךָ וְנִשְׁעָ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9[20]

명시적으로 드러난 후렴구들을 통해서 본문은 공동체의 회복의 기원을 담은 탄원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의 구조 파악이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후렴구의 규칙성을 깨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14[15]절이다. 미첼 다후드(Mitchell Dahood)는 다른 세 개의 후렴구와

12) cf. Erhard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103.

더불어 14[15]절 또한 동일한 중심 모티프로서의 후렴구로 다루고 있다.¹³⁾ 그러나 하나님 호칭만 일치할 뿐 회복과 구원의 내용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אלהי צבאות שוב־נָא הִבַּט מַשְׁמַיִם וְרָאָה וּפָקֵד נֶפֶשׁ אָדָם

만군의하나님이여 제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내려 살피사사 보시고 이 포도나무에
임하소서¹⁴⁾ 14[15] (사역)

본 절의 특이성은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פָּקֵד)를 간구하기 때문이다. 다른 세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고(הֲשִׁיבֵנוּ)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돌아서서 그의 얼굴빛을 비출 때(הִאָּר)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14[15]절에서는 하나님의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직접 보시고 친히 방문하신다. 연속적인 4개의 명령문에 주의해야한다: “돌아오소서”(שׁוּב־נָא), “내려 살피소서”(הִבַּט), “보소서”(וְרָאָה), “임하소서”(וּפָקֵד). 사실상, 다른 세 개의 후렴구는 하나님의 돌아오심으로써 즉, 얼굴빛을 비추심으로써 회복이 성취된다. 그러나 본 절은 돌아오심 뿐 아니라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보시고 마침내 포도원 현장에 오시는 구체적인 역사적 실행을 강조한다. 맥칸(J. Clinton McCann)이 지적하듯이¹⁵⁾ 출애굽의 구원이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출 3:7), “내가 내려가서”(출 3:8),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고”(출 3:16),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출 4:31)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흡사하다.

시편 80편에서 포로기 이스라엘 구원의 다의적 의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본문 8-15절 [9-16절]의 포도나무 비유의 문학적 첨가에 기인한다. 별종의 후렴

13) Mitchell Dahood, *Psalms II 51-100*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3), 255; J. Clinton McCann, Jr., *The Book of Psalms*, 1000.

14) פָּקֵד의 문자적 의미는 ‘방문하다’이다. 바이저는 ‘방문하다’(visit)로, 다후드는 ‘돌보다’(take care of)로, 테이트는 ‘살피다’(inspect)로 번역한다. 이곳에서는 방문의 문자적 의미를 강조하여 번역하였다.

15) J. Clinton McCann, Jr., *The Book of Psalms*, 1000.

구인 14[15]절은 바로 포도나무 단락에 속해있다. 사실상 포도나무 비유 단락은 삽입된 역사회고와 기도문으로서 본 단락이 빠지면 시편 80편은 세 개의 규칙적 후렴구와 더불어 완벽히 통일된 문학 단위를 이룬다. 그러나 포도나무 단락으로 인하여 시편 80편은 문학적 통일성이 상실된다.¹⁶⁾ 대신에 다의적 의미를 띠기 시작한다.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 전통적인 ‘여호와와 그의 키심’과 ‘얼굴빛을 비추심’으로부터 ‘내려다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고’, ‘친히 방문하심’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구원역사의 실행까지 나아가도록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 변화와 모티프 발전의 중심부에 다윗계약사상의 모티프로 읽을 수 있는 15[16]절과 17[18]절이 놓여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학자들은 중복오사이거나 단순한 요셉지와 전통의 제의시가로서 읽어왔다. 그러나 역사비평적 관점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본문 자체의 중복된 구절의 나열이 그대로 전하는 다의성에 대한 이해이다. 전승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 2성전시대에 “아삽의 시”를 편집한 시편의 전수자들은(tradents) 지금의 본문형태를 우리에게 전달함으로써 요셉지와 중심의 탄식시에서 다윗 왕조의 계약사상을 떠올리게 해주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본문의 다의성은 일정한 학문적 기준에 따라 재단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정경공동체가 전수해준 본문의 형태 그대로를 히브리성서의 문학적 특징과 고유한 사상의 흐름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알터(Robert Alter)는 문학비평적 관점에서 성서본문의 다의적 요소들을 파악하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⁷⁾

대부분의 성서본문들은 시간이라는 역동적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인간적 관계성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본문의 다의성(operations of narrative)에 주목하는 문학적

16) 거스텐버거는 포도나무 단락의 삽입을 단순한 문학적 첨가 내지는 제의적 막간극(interlude)으로 간주한다: Erhard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105.

17)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81), 22.

관점은 성서본문처럼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의 하나님 인식을 밝혀주는데 최적의 방법론을 제공한다.

바튼(John Barton) 역시 주석자와 본문 자체와의 직접적 만남을 강조한다. 성서해석의 과정에서 본문과 독자 사이의 차이는 소멸되고 본문구성체(textuality) 만이 드러나게 된다고 지적한다.¹⁸⁾ 본문의 요소들의(textures of text) 총합인 본문구성체가 전하는 다의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래에서 문학비평적-정경비평적 관점에서 시편 80편의 문학적 다의성(literary equivocality)을 만나고 그 의미를 밝히려 한다.

3. 제 3권에서의 시편 80편의 위치

시편의 제 3권은 총 17개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선 제 1-2권과 가장 큰 차이는 다윗의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시편 86편을 제외하고는 표제어에서 다윗의 이름이 사라진다. 대신에 73-83편은 “아삽의 시”로 묶이고 86편을 제외한 84-88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묶여있다.¹⁹⁾ 제 3권의 마지막 시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로 소개되어 있다. 그만큼 제 3권 전체는 더 이상 다윗 개인 보다는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에 관심하는 것을 드러내려 한다. 이와 같은 다윗 전승의 약화는 월슨이 지적한 것처럼 제 3권이 다윗 왕조의 실패를 다루고 있다는 주장의 배경이기도 하다. 제 3권의 시편들 역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탄식이 주를 이룬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제 2권에서 보였던 탄식과 희망의 교차가 제 3권에서는 더욱 현저하게 드러남으로써

18) John Barton, *Reading the Old Testament: Methods in Biblical Stud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221.

19) “다윗의 시”와 더불어 “아삽의 시”와 “고라 자손의 시”가 묶이는 오경적 시편의 편집형성과정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Klaus Seybold, *Introducing the Psalms*, tr. by R. Graeme Dunphy (Edinburgh: T & T Clark, 1990), 20-23.

그만큼 포로시기의 암울한 상황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다.²⁰⁾ 먼저, 73편과 74편은 탄식하지만 이어 나오는 75-76편은 하나님의 견고한 다스리심에 소망을 둔다. 다시금 77편에서는 탄식소리가 들리다가 이윽고 78편에서는 감사사가 드러진다. 그러나 탄식은 79-80편에서 공동체의 탄식으로 확장된다. 시편 81편은 제 3권에서 유일한 공동찬양시인데 전체 구조상 정중앙에 위치한다. 82편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되나 이어지는 83편은 깊은 탄식 가운데 원수보복시를 발한다. 84-85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서 시온의 회복에 대한 감사시이다. 86편과 88편은 어두운 탄식을 표현하며 그 사이의 87편은 대조적으로 시온의 견고함을 밝게 노래한다. 끝으로 89편은 구체적인 다윗언약을 명시하며 그것의 실패를 탄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제 3권의 각각의 시편들이 대구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전체의 구조를 일별하면 다음과 같은 도식이 가능하다.²¹⁾

73 하나님 약속의 부재 현실	A
74 멸망의 현실 탄식	B
75-76 하나님의 시온 통치를 기념	C
77 고통 속의 부르짖음	D
78 패역한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역사 회고	E
79 더럽혀진 주의 성전 탄식	F
<u>80 울타리가 무너진 포도원의 재건을 간구</u>	<u>G</u>
81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찬양	H
<u>82 공의가 무너진 세상의 재건을 간구</u>	<u>G'</u>
83 멸망당한 주의 백성 탄식	F'

20) J. Clinton McCann, "Books I-III and the Editorial Purpose of the Hebrew Psalter,"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ed. J. Clinton McCann (Sheffield: JSOT Press, 1993), 97.

21) 이와 유사하게 시편 3권을 동심원적 구조로 분석한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본 연구에서처럼 완벽한 키아스무스 구조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3권의 중심 또한 81편이 아닌 81-82편으로 간주하고 있다.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시편』, 216.

84-85 시온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회고	E'
86 고통 속의 부르짖음	D'
87 시온의 견고함 기념	C'
88 멸망의 현실 탄식	B'
89 다윗계약의 부재 현실	A'

위의 구조분석에서 볼수 있듯이 제 3권은 완벽한 교차대칭구조(Chiasmus)를 이룬다. 그 중심에는 공동체의 찬양시인 81편이 포로기 탄식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한다.²²⁾ 그리고 그 찬양은 바로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경험했을 때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부르던 그 찬양 그대로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81:2). 바벨론 포로살이의 상황에서 이보다 더한 기적적 구원의 찬양이 어디에 있겠는가?²³⁾ 이 찬양의 능력이 제 3권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하나님 약속의 부재 현실’(A)과 ‘다윗 계약의 부재 현실’(A)을 극복하도록 이끈다. 뿐만 아니라 냉혹한 멸망의 현실(B-B’) 까지도 시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며 넘어서게 한다(C-C’). 계속된 고통 속의 부르짖음(D-D’) 조차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E)와 시온의 역사(E’) 회고를 통해 응답을 얻는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상황에서 더럽혀진 성전과(F) 멸망당한 백성(F’)의 고통은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야 한다. 성전과괴와 동족유린의 처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원수보복을 야웨께 간구한다.²⁴⁾ 마침내 이스라엘은 재건을 꿈꾼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 더불어 움직이기 시작한다(G-G’). 그 재건과 회복을 위한 이야기가 시편 80편과 82편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시편 80편(G)은 시편 82편(G’)과 대구를 이루면서 시편 제 3권의 중심주제

22) 81편의 장르를 다루드는 북이스라엘의 명절 때 불렀던 공동체의 찬양으로 본다: Mitchell Dahood, *Psalms II 51-100*, 263.

23) 81:5-10[6-11]에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올린 아웨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한다.

24) Walter Brueggemann, *The Message of the Psalms* (Minneapolis: Augsburg, 1984), 73.

인 81편(H)의 공동체 찬양시를 감싸고 있는 정경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시 82편은 궁궐에 의하면 “예언적 시”²⁵⁾로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야웨-제왕시²⁶⁾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이와 교차대칭을 이루는 80편을 공동탄식시로 보는 기존의 주장은 재고가 필요하다.²⁷⁾ 시편 80편 자체는 전형적인 탄식시의 양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제 3권의 정경적 맥락에서는 “예언적 시”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야웨-제왕시로 읽을 것을 요구한다. 이에 응답하기 위하여 아래에서는 공동탄식에서 제왕적 통치의 선포로 나아가는 시편 80편의 다의적 성격이 논의될 것이다.

4. 시편 80편의 “벤”과 “벤 아담”

본 연구의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시편 80편은 15[16]절과 17[18]절의 중복된 구절로 인해 본문비평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וּכְנָה אֶשְׂרָר־נִטְעָה וּמִיָּדָךְ וְעַל־בֶּן אֲמַצְתָּה לְךָ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아들²⁸⁾ 이니이다 15[16]

תְּהַיְיָדָךְ עַל־אִישׁ וּמִיָּדָךְ עַל־בֶּן־אָדָם אֲמַצְתָּה לְךָ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²⁹⁾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17[18]

로페(Alexander Rofé)에 의하면 두 구절의 중복오사의 문제를 필사가의 의도적 중복 곧 더블릿(doublets)으로 분석한다.³⁰⁾ 구약성서의 사본들을 기록하

25) Marvin E. Tate, *Psalms 51-100*, 332.

26) 하경택, “시편 82편의 해석과 적용: 하나님이며, 이 땅을 심판하소서,” 『구약논단』 15 (2009), 52.

27) cf. Walter C. Kaiser, Jr., “The Message of Book III: Psalm 73–89,” *Bibliotheca Sacra* 174 (2017), 132;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시편』, 216.

28) 원문의 בֶּן을 직역하였다.

29) 원문의 אִישׁ에 대한 직역이다.

30) Alexander Rofé, “The Text–Criticism of Pslam 80–Revisited,” 299.

는 과정에서 필사자들이 다른 전승의 사본에서 보았던 유사한 구절들을 나란히 기록하는 중복 기록의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다.³¹⁾ 따라서 본문비평학자들은 두 구절 중 어느 구절이 본래의 본문(original text)에 가까운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본문을 수정하거나 절수의 위치를 전위시키는 부담감이 따른다. 반면에 문학비평 학자들의 경우, 반복적 본문의 나열을 본문구성체(textuality)의 한 요소로 받아들인다. 정경적 본문이 전하는 다의성을 수용하고 해석해야 하는 과제를 안는다. 전자는 언어학적이고 역사적인 분석이, 후자는 문학적이고 미학적인 종합이 요구된다. 양자의 작업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주석의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이 본문의 정확한 뜻(the meaning)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주석가는 다만 본문의 다의성을 인정하고 새롭게 열리는 해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본문비평적 논의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 17[18]절의 기록이 본래의 본문에 해당하는 구절이고 15[16]절은 중복오기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로페는 15[16]절을 본문에서 제거하고 17[18]절을 다른 본문전승에 근거한 시편 89편 21[22]절에 근거하여 수정한다. 더 나아가 규칙적인 후렴구인 3[4], 7[8], 19[20]절에 비해 변형된 후렴구인 14[15]절을 다른 세 개의 반복어구와 똑같도록 변경하여 전체 본문을 규칙성이 돋보이는 문학적 단일체로 제시한다.³²⁾ 이와 같은 본문비평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깔끔한 본문을 제공하나 주석가의 근대적 합리적 기준에 근거한 재단(alteration)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히브리 운문체의 반복되는 어구의 극적 의미강화와 역설적 의미를 놓칠 우려가 있다. 심지어 정경공동체의 산물인 경전을 훼손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본문의 대폭 수정을 제안한 로페에 비하여 다후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 문제가 되는 15[16]절의 첫 단어(קָנַן)를 사 12:6의 קָנַן(쿤/세우다) 동사의 사역형 용례를 따라 “돌보아주소서”라는 명령어로 교정하여

31) Em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241–243.

32) Alexander Rofé, “The Text–Criticism of Psalm 80–Revisited,” 299.

현재의 위치에 존치시키면서 앞선 포도나무 비유의 맥락을 기꺼이 따른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것,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יָד** (벤/아들)을 돌보아 주소서”³³⁾ 문제는 “힘있게 하신 아들”의 정체인데 다후드는 89편 21[22]절에서 다윗을 가리키는 “힘있게 한 자”와의 관련성 상에서 본문에서의 ‘아들’을 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이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줄곧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80:8[9]).³⁴⁾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본문 17[18]절의 후반절에서 나오는 **בֶּן־אִדָּם** (벤 아담/인자)의 정체는 또 무엇인가? 다후드를 비롯한 주석가들은 17[18]절의 인자를 왕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앞서 나온 15[16]절의 ‘아들’ 또한 일관되게 왕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포도나무 단락에서의 ‘아들’과 17[18]절의 ‘인자’는 문학적 맥락상 상이한 정체성을 지닌다. 거스텐 버거는 포도나무 단락에서 줄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간구하던 흐름이 17[18]절에 이르러 갑자기 한 사람(**אִישׁ**), 곧 한 특별한 인자(**בֶּן־אִדָּם**)를 위한 중보의 간구로 분위기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³⁵⁾

본래 포도나무 비유 단락이 없었다면 17a[18a]절은 이미 앞서 몇몇 주석가들이 밝혔듯이 ‘son of the right hand’의 의미를 가진 베냐민 지파의 ‘왕’을 가리키는 의미로 수렴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하인네만(H. Heinemann)은 베냐민 지파였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본문이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³⁶⁾ 그러나 포도나무 단락이 들어오면서 이와 더불어 17[18]절과 유사한 15[16]절이 나란히 병기되었을 때 본문의 의미 파악이 어려워졌다. 더욱 정확하게는 본문 문학구성체의 결들(textures)이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알터는 이러한 히브리 운문체의 반복어구들의 변화를 중복오기나 단순한 반복으로

33) Mitchell Dahood, *Psalms II 51-100*, 255.

34) Marvin E. Tate, *Psalms 51-100*, 307.

35) Erhard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105.

36) H. Heinemann, “The Date of Psalm 80,” 297–302.

보지 않고 의미강화나 분위기 전환의 신호(signal)로 삼는다.³⁷⁾ 실제로, 두 절 사이의 변화는 ‘아들’에서 ‘인자’로 단어교체의 차원이 아니다. 본문 전체의 의미가 이스라엘의 힘없는 탄식에서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바라는 당찬 믿음의 소망으로 전이된다. 이에 대한 문학적비평적 읽기의 근거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본문 10-11[11-12]절의 포도나무 비유가 수사적으로 알려주는 이스라엘의 영토경계이다. 단지 북이스라엘 또는 남유다의 영토로만 끝나지 않는다. 10[11]절의 포도나무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는 것은 남쪽으로는 시내산을 북쪽으로는 레바논을 가리킨다. 또한 11[12]절에 “그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은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까지의 영토를 의미한다.³⁸⁾ 실제적인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이루지 못했던 약속의 땅에 대한 완벽한 차지와 정복을 내비치고 있다. 둘째, 12[13]절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에서 드러나는 ‘헐린 담’ 모티프는 제 3권의 마지막 시인 89편 40-41[41-42]에서 더욱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였나이다

위의 절은 다윗언약의 파기를 탄식하는 89편 38-45[39-46]절로 이루어진 단락에서 발견되는 구절이다. 유사한 구절의 발견은 시편 80편과 89편의 관계성 고려로 이어지면서 80편의 포도나무 파괴의 비유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멸망(cf. 사 5:5)의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89편의 “기름 부음 받은 자”(89:38[39]) 곧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셋째, 15[16]절의 아들(15)은 구약성서 내에서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로 소개된다(호 11:1).

37)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97.

38) Marvin E. Tate, *Psalms 51-100*, 315.

그러나 17[18]절에서처럼 사람(אִישׁ 또는 אָנוּשׁ)과 인자(בֶּן-אָדָם)와 대구로 함께 나올 경우 특정한 민족 공동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대부분이 인생 일반을 가리킨다(민 23:19; 욥 25:6, 35:8; 사 51:12; 렘 49:18; 미 5:7 등). 그런데 유독 시편에서 두 단어가 함께 나올 경우 인생일반을 넘어서 특정한 개인의 고백에 집중한다:

מִה־אָנוּשׁ כִּי־תִזְכְּרֵנוּ וּבֶן-אָדָם כִּי תִפְקְדֵנוּ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 8:4[5])³⁹⁾

יְהוָה מִה־אָדָם וְתִדְעֵהוּ בֶן-אָנוּשׁ וְתִחַשְׁבֵּהוּ
 여호와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144:3)

같은 맥락에서 시편 80편의 17[18]절의 사람(אִישׁ)과 인자(בֶּן-אָדָם)는 특정한 한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17[18]절은 특별한 한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있다. 그를 힘 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소생되고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라고 바로 다음 18[1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이스라엘 공동체와는 구별된 특정한 개인을 뜻한다. 따라서 시편 80편의 더블릿 15[16]절과 17[18]절에서 '아들'에서 '인자'로의 변화는 탄식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새로운 메시아의 통치로의 의미 변화를 내포한다.

39) 시 8편의 인자는 인생 일반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한 특정한 개인의 고백으로 향하고 있음을 메이스(James L. Mays)는 주장한다. 그는 더 나아가, 인자(벤 아담)에 담긴 제왕적 성격을 논하고 있다: James L. Mays, "What is a Human Being? Reflections on Psalm 8," *Theology Today* 50 (1994), 517-518; 테이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왕조와 관련된 제왕적 성격과 신적 통치의 분위기가 시 8편의 주조를 이루고 있음을 주장한다: Marvin E. Tate, "An Exposition on Psalm 8,"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28 (2001), 343-359.

5. 시편 80편의 메시아사상

전통적으로 시편 80편은 제 3권 안에서 멸망한 다윗 왕조에 대한 공동체의 탄식시로 읽혀져 왔다. 따라서 제 3권의 마지막 시편인 89편의 주제와도 잘 어울린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로 밝혀진 것은 시편 89편이 공동체의 탄식시 보다는 제왕시로서 분류된다.⁴⁰⁾ 마찬가지로 80편 또한 더 이상 탄식시 보다 제왕시로서의 분류가 요청된다. 그동안 시편 80편의 제왕적 성격이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윌슨이 시편의 정경적 구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제 3권을 다윗왕조의 실패에 대한 주제로 제한한 데에 있다. 왜냐하면 윌슨의 경우 제 4권이 시편 전체구성의 중심(center)으로서 제 3권의 질문 곧 89편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다윗계약의 실패에 대한 대답이 4권의 “제왕즉위시”(93, 95-99편)들의 ‘주께서 다스리신다’는 핵심선포에 담겨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⁴¹⁾ 그러나 앞서 제 3권의 정경적 구성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제 3권의 주제는 다윗왕조의 실패가 아니다. 제 3권의 정중앙에 위치한 81편에서 공동체의 찬양이 우리의 능력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전히 노래하고 있다. 아난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포로기에도, 아니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서 고통과 파괴의 현장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와 통치를 소망하였다. 제 4권이 시편구성의 절정부를 이루고 있다는 윌슨의 주장의 취약점은 탄식 속에서도 항상 왕 되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소망하며 찬양하는 이스라엘 탄식시의 다의적 요소에 대한 간과이다. 그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시편 80편이다.

시편 80편은 제 3권의 중심인 시편 81편을 82편과 더불어 감싸고 있음을 위의 교차대칭구조에서 확인한 바 있다. 82편은 세상의 불공정한 현실을 고발하

40) 다후드는 제왕시로 보고 있는데 반해(Mitchell Dahood, *Psalms II 51-100*, 311), 거스텐버거는 공동탄식시로 보고 있다(Erhard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154).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대부분 제왕시로 고려하고 있다. J. Clinton McCann, Jr., *The Book of Psalms*, 1033; 김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편 89편,” 85.

41) Gerald H.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215.

면서 악인들의 손아귀 아래에서 시름하는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위해 신들 중에 야웨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좌에 오르는 제왕적 시를 선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편 80편 또한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 유린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우측에 서신 새로운 인자를 통해서 야웨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와 통치를 소망하는 제왕적 시의 성격으로 충일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중복오사로 간주되어 본문비평의 대상이 되었던 80편 15[16]절과 17[18]절이 사실은 탄식하는 이스라엘(יִשְׂרָאֵל)에서 주께서 힘을 더하시는 인자(יְהוָה-יִצְחָק) 곧 새로운 왕의 도래라는 극적 분위기의 전환을 이루는 더블릿임을 위에서 확인하였다. 우리는 그 인자의 개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메시아사상을 읽게 된다.

시편 80편에서의 메시아사상은 이미 주석가들에 의해 언급되어져 왔다. 테이트는 17[18]절이 포로 후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는 메시아 기대와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스가랴 3장 8절과 6장 12절에 의하면 스룹바벨을 가리켜 “싹”(Branch)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시편 80편의 맥락과 닿아 있기 때문이다.⁴²⁾ 다후드는 17[18]절의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의 구절이 메시아 소망을 드러내는 시편 110편 1절의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구절과의 관련성을 지적한 바 있다.⁴³⁾ 무엇보다도 17[18] 후반절의 인자(Son of Man)라는 표현은 신약성서 복음서의 예수 칭호인 ‘인자’ 개념과 관련하여 강한 메시아적 인상을 전하고 있다. 물론, 시편 80편의 개념이 원시 기독교의 인자 칭호와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다고 논의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다니엘서(7:13)를 필두로 신구약 중간시기의 유대묵시문학의 인자개념이 신약성서의 복음서 기자들에게 흘러들어간 상황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구약성서의 인자개념이 묵시문학의 인자전승의 출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곳에서는 그 복잡한 전승과정을 다 살필 수는 없으나 시편 80편의 인자개념이 메시아사상과의 관련성에서 새롭게 조명 받을 필요는 있으리라 사료된

42) Marvin E. Tate, *Psalms 51-100*, 312.

43) Mitchell Dahood, *Psalms II 51-100*, 260

다. 상대적으로 구약성서에서는 그동안 시 8편의 ‘인자’나 에스겔서의 ‘인자’(mortal)에 대한 논의가 다니엘 7장 13절의 “인자 같은 이”와의 관련성 가운데 많이 논의된 것에 비하면⁴⁴⁾ 80편의 인자 개념 논의는 그렇게 활발히 진행되어 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 확장된 논의는 다음 과제로 미루고 이곳에서는 시편 80편의 인자 개념의 발전이 메시아 사상과 연관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들을 언급하려 한다. 첫째, 구약성서 메시아 사상의 기원인 사무엘하 7장의 나단 계시와의 관련성을 들 수 있다. 특히 80편 17[18]절 후반절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라는 표현은 사무엘하 7장 13절을 연상시킨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⁴⁵⁾ 둘째, 시편 80편은 인자에게 장차 임할 구원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힘 있게 하고 손을 엮을 때 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생케 됨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17-18[18-19]). 구원받는 대상은 남유다만이 아니다. 요셉 지파까지 아우르는 그리고 약속의 땅 이상을 포괄하는 전면적인 구원이다. 셋째, 시편 80편의 인자는 특이하게도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우편에 선 왕과 같은 구원자로 옮겨간다. 본문이 ‘벤’에서 ‘벤 아담’으로 더블릿 표현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80편의 인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포도원이 무너지는 것을 함께 경험한 고통 받는 인자(Suffering Son of Man)이다.⁴⁶⁾ 고통 받은 그 인자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 일어나 왕과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된다. 이러한 메시아적 소망이 바로 시편 80편의 주제이다.

44) Brevard S. Childs, "Psalm 8 in the Context of the Christian Canon," *Interpretation* 23 (1969), 20-31; Maurice Casey, *Son of Man, The Interpretation and Influence of Daniel 7* (London: SPCK, 1979); Michael Goulder, "Psalm 8 and the Son of Man," *New Testament Studies* 48 (2002), 18-28; Joel Marcus, "The Son of Man as Son of Adam," *Revue Biblique* 110 (2003), 38-61.

45) David Hill, "'Son of Man' in Psalm 80 v.17," *Novum Testamentum* 15 (1973), 266.

46) Andrew Streett, "From Marginal to Mainstream: The Adamic Son of Man and the Potential of Psalm 80," *Criswell Theological Review* 13 (2016), 96-97.

6.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80편의 다의성을 문학적-정경비평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기원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제의시편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시편 80편은 일정한 시기에 포도나무 비유 단락이 첨가되면서 다윗왕조와 연계된 공동탄식시의 양식을 보이게 되었다. 이 본문전승이 포로기 이후 “아삽의 시”들을 묶은 전수자에 의해 어색한 구절들의(특히, 15[17]절과 17[18]절) 나열로서의 현재의 본문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본문비평적 작업에 의해 본문의 원래의 모습을 재구성하는 대신 현재 본문의 어색함을 다의적 요소로 수용하면서 지금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제 3권에서의 시편 80편의 전략적 위치를 점검하였고 더블릿으로 규정된 15[17]절과 17[18]절의 수사비평적 의미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끝으로, 그동안 조명 받지 못했던 시편 80편에서의 메시아사상을 간략하나마 언급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다음의 세 가지 논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시편 80편이 공동탄식시가 아닌 제왕시로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공동탄식시로서의 양식비평적 장르규정이 정경비평적 관점에 의해 수정되었다. 즉, 시편 80편은 제 3권 내에서 교차대칭을 이루는 시편 82편과 마찬가지로 제왕시로서 위치하고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럴드 윌슨의 시편 편집구성에 대한 주장의 수정이다. 그에 의하면 제 3권은 다윗계약의 실패를 질문하는 것으로 끝나며 이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은 제 4권에 가서야 제왕즉위시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 3권에서는 중심부에 위치한 81편의 공동체의 찬양시와 또한 80편과 82편의 제왕시적 선포에서 이미 새로운 왕의 통치가 노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복잡한 전승과정의 산물인 시편의 다의성에 대한 주목이다. 기존의 역사비평적 관점에서는 다의성을 수용하거나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을 문학적이고 정경비평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음을 방법론적으로 논증할 수 있었다.

한 가지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시편 80편의 “하나님 우편에 선 자” 또는

“인자”(Son of Man)의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논지전개의 집중을 위해서 그리고 지면의 한계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점이다. 이제까지 인자에 대한 연구는 신약약중간시대의 초기 유대묵시주의 연구자들이나 신약성서학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자 또는 메시아사상의 원류가 구약성서로부터 발원한다고 볼 때에 사무엘하 7장의 나단 계시로부터 시편 8편이나 89편 또는 110편 그리고 예언서들과 다니엘서에 이르는 메시아 전승의 체계적 연구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편 80편은 그 오랜 전승의 한 역사적 시점에서 현실의 무질서 속에서도 새로운 왕의 통치와 질서를 기대하며 소망했던 정경공동체의 믿음의 기록이다.

7. 참고문헌

- 김진규, “제왕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본 시편 89편,” 『구약논단』 32 (2009), 83-110.
- 김창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편 46편의 시온신학,” 『구약논단』 32 (2009), 63-82.
- _____, 『한 권으로 꿰뚫는 시편: 성도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 (서울: IVP, 2015).
- 문은미, “시편의 구성적 접근을 통한 시편 제 4권의 이해,” *Canon & Culture* 3 (2009), 177-209.
- 하경택, “시편 82편의 해석과 적용: 하나님이며, 이 땅을 심판하소서,” 『구약논단』 33 (2009), 49-66.
-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81).
- Barton, John, *Reading the Old Testament: Methods in Biblical Stud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 Brueggemann, Walter, *The Message of the Psalms* (Minneapolis: Augsburg,

- 1984).
- Casey, Maurice, *Son of Man, The Interpretation and Influence of Daniel 7* (London: SPCK, 1979).
- Childs, Brevard S, "Psalm 8 in the Context of the Christian Canon," *Interpretation* 23 (1969), 20-31.
- Dahood, Mitchell, *Psalms II 51-100*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3).
- Gerstenberger, Erhard S,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 Goulder, Michael, "Psalm 8 and the Son of Man," *New Testament Studies* 48 (2002), 18-28.
- Gunkel, H. *Die Psalmen übersetzt und erklärt* (Göttingen, 1929).
- Heinemann, H, "The Date of Psalm 80," *JQR* 40 (1949/50), 297-302.
- Hill, David, "'Son of Man' in Psalm 80 v. 17," *Novum Testamentum* 15 (1973), 261-269.
- Howard, David M. Jr.,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7).
- Johnson, Aubrey R, *The Cultic Prophet and Israel's Psalmody*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1979).
- Kaiser, Walter C. Jr.,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Psalms," *Bibliotheca Sacra* 174 (2017), 3-12.
- _____, "The Message of Book III: Psalm 73-89," *Bibliotheca Sacra* 174 (2017), 131-140.
- Marcus, Joel, "The Son of Man as Son of Adam," *Revue Biblique* 110 (2003), 38-61.
- Mays, James L, "What is a Human Being?: Reflections on Psalm 8," *Theology Today* 50 (1994), 511-520.

- McCann, J. Clinton, "Books I-III and the Editorial Purpose of the Hebrew Psalter," in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ed. J. Clinton McCann, 93-107 (Sheffield: JSOT Press, 1993).
- _____, *The Book of Psalms* (Nashville: Abingdon, 1996).
- Robertson, O Palmer, *The Flow of the Psalms: Discovering their Structure and Theology* (Philadelphia: P. & R., 2015).
- Rofé, Alexander, "The Text-Criticism of Psalm 80-Revisited," *VT* 61 (2011), 298-309.
- Seybold, Klaus, *Introducing the Psalms*, tr. by R. Graeme Dunphy (Edinburgh: T & T Clark, 1990).
- Streett, Andrew, "From Marginal to Mainstream: The Adamic Son of Man and the Potential of Psalm 80," *Criswell Theological Review* 13 (2016), 77-98.
- Tate, Marvin E, *Psalms 51-100* (Dallas: Word, 1990).
- _____, "An Exposition on Psalm 8,"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28 (2001), 343-359.
- Tov, Emmanuel,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 Weiser, Artur, *Ths Psalms*, tr. by Herbert Hartwe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 Westermann, Claus,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tr. by Keith R. Crim and Richard N. Soulen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 Wilson, Gerald H,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Chico, California: Scholars Press, 1985).
- _____, "The Use of the Royal Psalms at the 'Seams' of the Hebrew Psalter," *JSOT* 35 (1986), 88-92.

검색어

시편 80편

다의성

제왕시

정경비평

문학비평

메시아사상

The Equivocality of Psalm 80: From Communal Lament to Royal Psalm

Keun Jo Ahn Ph. D.

Professor, Old Testament Studies

Hose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lve into the equivocality of Psalm 80. It has been discussed that Psalm 80 is a communal lament derived from the Northern tribal cultic settings. Verses 16 and 18 (MT versification), however, demonstrate such evident Messianic expressions as “the one at your right hand” or “the son of man strengthened by God,” which must have been used in the Southern kingdom in relation to the Davidic covenant. How does a psalm contain both traditions of the Northern and the Southern kingdom? What does “the son of man” whom God strengthens signify? Is he the king of the Northern or the Southern monarchy? Or is he the future Messiah who will rebuild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questions, this paper first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www.kci.go.kr

of equivocality of Psalm 80. Due to the complicated history of literary transmissions of the psalm, the text displays a complexity that any specific methodology of interpretation could not solve. That is why this paper utilizes a literary-canonical criticism to exegete the text. Because the literary-canonical critical perspective regards the text as it is. It considers the contradictions and disparities of a text as a signal for some changes in the literary context resulting in new meanings for each canonical community.

Second, the structure of the third Book of the Psalm which is composed of 17 psalms has been analyzed. We have found that the 17 psalms form a chiasmus centering Psalm 81, which is the only communal praise in the third corpus. Our text Psalm 80 includes the central Psalm 81 with the other pair of Psalm 82. It is surprising that both Psalm 80 and 82 emerge as “Royal Psalms.” It demands that Psalm 80 should be read as a psalm in the category of royal psalms, but not of communal psalms.

Third, the doublet of verses 16 and 18 has been interpreted by a rhetorical critical method. Even though the two verses seem to be miswritten by repetition, the literary context shows an intentional significant change of the meaning of “the stock” in verse 16. As the word is changed from “son” in verse 16 to “son of man” in verse 18, the meaning of the vine is transformed from the Israelite community to the future messianic king.

Finally, it mentions three messianic points that Psalm 80 signifies. They are related to the Nathan oracle in 2 Samuel 7, to the concept of Saviour in the future, and to “the One who is right side of God” in Psalm 110:1.

This paper concludes with two points. One is that the literary-canonical reading is an appropriate interpretative tool to elucidate the equivocal meanings of Psalm 80. The other is that the future study of Psalm 80 should be concerned with a deeper level of investigation into the tradition of the “Son of Man” in relation to Psalms 8, 89, 110 and other prophetic literature as well as Daniel 7.

Keywords

Psalm 80

equivocality

Royal Psalm

canonical criticism

literary criticism

Messianism

- 투고일: 2018년 4월 1일
- 심사일: 2018년 4월 11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4월 28일

www.kci.go.kr